

## 올 상반기 도내 시군 고용률

# 장수군 '최다' (73.5%) 전주시 '최저' (53.4%)

### 실업률은 전주시 '최다' · 장수군 '최저'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고령화가 주원인

올 상반기 전북지역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장수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시는 가장 낮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를 보면 전북의 경우 장수군 고용률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시는 53.4%로 가장 낮았다. 이들 2개 지역간 고용률 차이는 무려 20.1%포인트를 나타냈다. 시군별 고용률을 보면 장수군에 이어 부안군 71.7%, 무주군 70.0%, 진안군 68.5%, 임실군 67.4%, 고창군 67.0%의 순을 보였다. 하위지역은 전주시가 가장 낮고 이어 군산시 54.6%, 익산시 54.8%, 정읍시 58.2%, 김제시, 61.6%, 완주군 62.0%, 남원시 62.1%의 순이다.

실업률을 보면 전주시가 3.0%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읍시 2.1%, 임실군 1.9%, 완주군 1.7%, 군산시와 남원시, 순창군이 각각 1.5%로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역시 장수군이었다. 장수군의 실업률은 0.3%를 보였으며 이어 고창군이 0.7%, 부안군 0.9%, 무주군 1.0%의 순이었다. '고령화'가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국에서 '연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5곳 가운데 진안군(44.3%)이 최고로 높았으며 이어 임실군 40.3%, 무주군 36.7%, 장수군 35.4%로 전국 1~4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 정선군이 29.8%로 뒤를 이었다. /고민형 기자



### 폭염을 이겨내고 찾아온 '수확의 계절'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0일 오전 어느 농가에서 농부가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 한옥문화 기반 '전주 한스타일' 모로코 한국대사관까지 진출

### 관저 응접실 등 '한국의 안방' 컨셉으로 시공

전주 한옥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주 한스타일이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교부와 전북도·전주시의 협력사업인 '2016년도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주 모로코한국대사관 사업이 완료됐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미국 시애틀 총영사관 사업을 시작으로 주 프랑스한국 대사관에 이어 세 번째 대상인 모로코 한국대사관의 한스타일 공간연출로 인기 상승 중이다. 모로코 한국대사관은 소용점실과 민원실, 다목적홀 공간이 '한국의 안방과 사랑방' 컨셉으로 시공됐다.

한국 전통생활공간 '한옥'의 구성요소인 안방과 사랑방을 모티브로 실용적이면서도 한국의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한옥의 안방을 표현한 관저 소용점실은 한쪽 벽면을 모란도 병풍으로 장식했다. 민화 모란도는 조선시대 부귀와 풍요를 상징하는, 당시 우리 안방에 빠지지 않았던 소품으로 강한 상징적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면 서도 한국인의 정서는 품위를 느끼게 하는 우리 대표 민화다. 사랑방을 모티브로 한 민원실과 다목적 홀은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소통의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다. 다목적 홀에 사용된 전통창호 슷

대상은 다목적 홀이 한글 교실 및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장소임을 고려해 조선시대 셋을 할 때 사용하던 막대를 늘어놓은 문양을 활용한 슷대살 창호로 연출된 것이다. 이번 모로코대사관 연출을 담당할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인미에 실장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 의해 한국과 모로코의 문화가 하얀 한지위에 채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백한 공간을 연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형규 정부부지사는 "이번에 모로코 대사관에 특히 열약했던 한글 교실 공간 다목적 홀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해 모로코와 한국을 잇는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 사업을 외교부와 함께 지속 추진해 전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오늘도 전국 '쌀쌀'

8월 마지막날인 31일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30일 "내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최고기온이 20도 내외를 보여 오늘보다 2~5도 가량, 평년보다 3~9도 가량 낮은 분포를 보이겠다"며 "중부지방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서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일부 남부 내륙에는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세종 16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20도, 제주 22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3도, 세종 23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30도 등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 야 3당, "김진태 폭로, 출처가 청와대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30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억원대 초호화 유럽 여행을 제공받았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사정당국이나 정보기관, 혹은 청와대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갖고 국민들에게 폭로를 하고 있다"고 김 의원 폭로 막후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송 주필의 문제가 검사 출신인

김 의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에 힘을 보탤다. 고 대변인은 "송 주필과 관련한 세세한 의혹은 수사기관의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면 외부로 드러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자료는 청와대나 권력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입수하기 힘든 자료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정치적 작업'이 아니냐"며 "그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청와대나 김 의원이 명확히 답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부안군  
BUAN-GUN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청정 부안의 농특산물로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한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 정다운 선물 추천



명품쌀 '천년의 솜씨'



부안콩김



부안뽕주



곰소젓갈



부안고등어